

전일동향

전일대비 10.10원 하락한 1,426.90원에 마감

1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0.10원 하락한 1,426.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10원 하락한 1,430.90원에 개장했다. 간밤 NDF 환율 하락 및 외환당국의 발언으로 환율은 하락 출발했으며, 이후 위안화 강세 동조해 1,420원 중반으로 급락했다. 국내 증시 호조 및 위안화 강세 지속에 환율은 1,420원대 후반에서 유지하며, 1,426.9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4.4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30.90	1433.70	1426.00	1426.90	1428.10
엔화	950.27	950.75	937.79	939.12	-	
유로화	1516.03	1517.47	1498.81	1502.0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42	-5.32	-13.06
결제환율(수입)		-0.52	-4.2	-11.27	-25.1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달러화 반등에...1,43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7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26.90) 대비 8.85원 상승한 1,434.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반등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2년물 및 10년물은 금일 발표될 미 11월 CPI 경계심리 등에 2bp 정도 상승 마감하였다. 달러화는 CPI 관망 속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에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출 확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낙관론이 유지되며 달러에 소폭 상승했다. 금일 환율은 미 11월 CPI 경계심리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엔디비아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증시의 영향에 어제 반등에 성공한 국내증시도 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증시하락을 재료 삼아 롱플레이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국의 적극적인 안정화 조치 및 수출업체 고점매도 등은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29.33 ~ 1439.33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66.7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85원 ↑
	■ 美 다우지수 : 44247.83, -154.1p(-0.3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2.3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44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